

## 조수미, '아시아 명예의 전당' 헌액…한국인 최초

소프라노 조수미가 한국인으로는 처음 '아시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소속사인 SMI엔터테인먼트는 17일, 조수미가 지난 13일 온라인으로 중계된 제17회 아시아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입회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명예의 전당은 2004년 미국 시애틀에서 창립한 비영리단체다. 다양한 분야의 아시안 리더를 선정해 명예의 전당에 헌액함으로써 그들의 노력과 공로를 되새기는 동시에 아시안들의 권리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간 운영해 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아시안들에 대한 폭력과 편견을 개선하며 아시안 문화들과 다른 다양한 문화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상호 존경심과 존중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간 홍콩 배우 이소룡과 피겨스케이트 선수 크리



▲ 아시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소프라노 조수미. 사진=SMI

스티 앤마구치, 언론인 코니 정, 한계 미국인 배우 대니얼 대 킴 등이 헌액됐다.

올해는 조수미를 비롯해 음료·식품회사 펙시코의 최고경영자를 지낸 인도계 미국인 인드라 누이, 일본계 미국인 대중음악 프로듀서 스티브 아오키, 중국계 자메이카인 기타리스트 필 헨 등 10명이 선정됐다.

조수미는 "지난 35년간 노력한 것 들로 개인의 명예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인으로 인정받게 돼 행복하다."며 "유네스코의 평화예술인으로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다음 35년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수미는 1993년 이탈리아 최고 소프라노에게만 준다는 황금 기리기상을 수상했고, 2008년에는 이탈리아인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 푸치니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소프라노로 평가받고 있다.

## 켈리 클락슨 “NCT 127, K팝 수퍼스타”

그룹 '엔시티(NCT) 127'이 미국 시청자들의 눈길을 모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127은 17일 NBC의 인기 토크쇼 '켈리 클락슨 쇼(The Kelly Clarkson Show)'에 출연해 정규 3집 리패키지 타이틀곡 '페이보릿' (뱀파이어)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날 방송의 호스트인 팝스타 켈리 클락슨은 NCT 127에 대해 "여러 차트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는 K팝 수퍼스타"라고 소개했다. "최근 정규 3집 '스티커(Sticker)'로 빌보드 앨범 세일즈 차트 1위에 올랐으며, 뮤직비디오를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130만장의 주문이 들어왔고, 발매 1주일 만에 200만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 NCT 127 '켈리 클락슨 쇼' 첫 출연.  
사진=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일"이라고 조명했다.

이에 NCT 127은 " '켈리 클락슨 쇼'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페이보릿' 무대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 오늘 무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NCT 127은 정규 3집과 이 앨범의 리패키지 앨범을 더해 판매량 358만장을 기록했다.

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올해 케이팝 최고 순위를 기록한 3위로 시작해 8주 연속 차트인을 기록, 영

국·독일·호주 공식 음악 차트 진입, 일본 및 중국 차트 1위 등 각종 음악 차트를 석권했다.

미국 CBS의 '제임스 코든 쇼', NBC의 '켈리 클락슨 쇼' 등 해외 주요 TV 쇼에 연이어 출연하는 등의 행보를 펼치고 있다.

낱말퍼즐 정답										
1	해	프	닝		2	경	국	지	3	색
외				4	유	품			안	
여		5	몽	니		6	흠		경	
7	행	8	정		9	집	10	착		
11	수	12	위		13	융		14	각	
16	경		상		17	통	보		리	
찰				18	가	성			무	
19	청	출	어	람	20	부	재	중		

3			2	6		4	8
8				1			9
	9	4	7			2	
4				7	3		
3			1		7		
5	6					1	
6		3				5	7
8	5						
7			1	4	2	6	

## '오징어게임' 정재일 음악감독, 할리우드 영상음악상 수상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정재일 음악감독이 2021 할리우드 뮤직 어워즈(Hollywood Music In Media Awards, 이하 HMMA)를 수상했다.

▲ 정재일. 사진=유니버설뮤직코리아

정 음악감독은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HMMA 시상식에서 TV 쇼·드라마 부문 수상자로 호명됐다. HMMA에서 한국인 수상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HMMA는 영상 음악 산업 아티스트를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영화, TV, 다큐멘터리 등 전 세계 모든 영상 매체에 실린 독창적인 음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TV 쇼·드라마 부문에는 '오징어 게임'과 함께 넷플릭스의 '홀스턴', '조용한 희망', 디즈니+의 '로키', '완다비전', 애플TV+의 '피지컬', '데드 레스' 등이 후보로 올랐다.

정 음악감독은 어릴 적부터 '천재 음악'로 불렸다. 3살 때 피아노를, 10살 때 기타를 시작해,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생 형들과 록 밴드를 만들고, 중2 때 서울재즈아카데미에 들어갔다. 17살이던 1999년 이적, 정원영, 한상원 등과 결성한 밴드 킥스의 베이시스트로 데뷔한 이후, 연극·영화·뮤지컬·무용·창극 음악을 만들어왔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비롯해 '옥자', '남한산성', '수상한 그녀', '도가니' 등의 음악 작업에 참여했으며,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2021 서울공연예술제 '맥베스' 등에 참여했다. 2019년에는 '기생충'으로 HMMA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은 하지 못했다.

그는 "멋진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함께 작업한 김성수 음악감독, 박민주 작곡가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